

# “지방공공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해달라”

### 이용섭 광주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서 제안 지사협, 공동성명서 채택...지역공공의료 인프라확충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이용섭 광주시장의 '지방공공의료원 설립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안안을 공동성명서 내용에 포함하고, 성공적인 의료원 설립에 힘을 보태기로 결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 예타면제'를 공동성명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지방정부의 최우선 역할이 됐다"며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떠나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 시설로,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정부에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이용섭 시장이 제안한 내용을 포함한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대폭 신설·증설을 통한 공공병상 확충과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립공공의료대

학과 국·공립 의과대학의 조속한 신설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 및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등이 담겼다.

광주시는 이번 공동 성명 채택으로 현재 추진중

인 광주공공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7월 1일 상무지구 도심융합 특구 부지 내에 1500억원을 들여 총 350개 병상을 보유한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르면 오는 10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20대 대선 공약 정책 제안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관련 추진사항 ▲진정한 자치지안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 방안 등도 논의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4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각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왼쪽부터)

## 내달 14일 전국 총파업 예고 속 광주도시철도공사, 상생 선언문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노사상생을 위한 공동 선언문 채택에 합의했다.

다음달 14일부터 전국 5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나온 노사 상생 선언이라는 점을 들어 그 의미가 크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윤진보 사장과 이정수 노동조합 위원장은 26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및 노사 평화 실현을 위한 'ESG 노사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에 합의하고, 미래지향적인 선진 노사 관계 정립을 약속했다.

노사는 이번 선언문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환경(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 강화(G) 경영으로 경영 개선을 이루고 지역대표 공기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특히 "광주시민에게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사의 존재 이유"라면서 "2호선의 성공적인 개통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사 이정수 노조위원장은 "전국 도시철도 노조가 공동으로 주장하는 무임수송 손실보전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지만, 지역민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성인지 예산 전문가 광주시, 1대1 모니터링 138건 이행 현황 등 점검

광주시는 26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2021년 성인지 예산 중점관리사업 78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1대1 대면 전문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안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미리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양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광주시와 여성가족재단은 시의회, 여성단체, 성별영향평가센터, 관련 부서 등이 함께 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2021년 성인지 예산 등 총 138건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고, 2021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대면 모니터링을, 2020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 모니터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광주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맡아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제한...골프도 사전 신고

### 시 감사위, 청렴도 바로잡기 공무원 강령 규칙 개정안 예고

청렴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가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극도로 제한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이날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을 강화,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청렴도 향상,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의 면담, 감독 등 대면 접촉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업무 시간 내에 사무실 등 공적인 장소에서 수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사전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촉 종료 후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직무 관련자와 금전거래가 있을 때는 당초 300만원 이상만 신고하게 했지만, 신고 금액 규정 자체를 없애고 신고거래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전에 신고할 수 없으면 5일 내 신고하도록 했다.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아예 금지했다. 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공공의료원 코로나 중증 치료체계 구축을”

### 김영록 전남지사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가 장기적으로 코로나 19 중증 환자를 공공의료원에서 집중 치료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워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검토하는 것에 발맞춰 장기적으로 공공의료원이 경증뿐만 아니라 중증환자까지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금부터 시설·장비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26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전남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줄

어드는 추세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므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의료원이 중증환자 치료체계를 갖추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8월 들어 하루 평균 20명이었던 확진자가 최근 5일째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확산세가 여전하므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모범국가로서 잘 대처하고 있고, 특히 전남도민들께서 방역수칙

을 철저히 지키고 백신 접종도 적극적으로 다 의료진과 방역 관련 공무원이 고생한 덕분에 전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정적"이라며 "사적모임 기준을 8명까지 확대하고 거리두기를 1단계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추석 전까지 안심할 수 없으므로 차단방역에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위중한 상황에서 백신이 중증환자 발생을 막아주고 전과 차단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추석 전까지 전 도민의 70%, 9월 말까지 80% 접종 목표를 달성해 전남이 가장 먼저 집단면역에 준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힘을 모으자"고 다독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목포 일자리꿈터서 청년 취업 돕기 '토크콘서트'

전남도가 도내 청년 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 멘토의 현실적 조언과 취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26일 목포에 있는 전남 일자리꿈터에서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 전남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취업 토크콘서트 및 특강'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소독·방역 실시 후, 구직자와 관계자 등 15명 이하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목포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센터에 취업한 멘토가 취업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구직자의 취업 고민 상담을 했다.

2부에선 김수미 PMA컨설팅 대표가 기업분석, 직무분석을 통한 취업전략 및 계획 수립에 대해 강의했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가 구직자의 취업 의욕을 높이면서, 효과적 취업전략을 수립해 성공적인 취업에 이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정운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취업 토크콘서트와 특강을 계기로 청년이 지역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돕겠다"며 "취업을 바라는 도민에게 역량 강화 등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무무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은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공공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자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가(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